

두루, 장애인네트워크 등에 2400만원 지원

지평 변호사들 법률지원도 제공

법무법인 지평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두루(이사장 김지형)가 12월 9일 ▲장애인, 교육의 중심에 서다(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) ▲한국의 이주아동구금 근절을 위한 법 · 정책 · 관행 개선을 위한 캠페인(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) ▲인도, 불가촉천민 아동과 여성의 인권과 교육기회를 위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'순다르의 꿈꾸는 희망도서관' (사단법인 글로벌호프) ▲UN 인종차별특별절차 한국보고서 활동 및 백서 제작 사업(아시아인권문화연대, 인권법센터 보다) 등 네 개의 사업을 선정,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총 2400여 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.

이들 단체들은 또 재정지원과 함께 두루 및 법무법인 지평으로부터 법률지원을 받게 된다.

이에 앞서 지평은 최근 미혼모자 생활시설인 애란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, 내년도 법률교육 계획을 논의했다.